



The Last Shelter

Tacloban, Philippines



Location
Tacloban, Philippines

Use
Civic

Date
2013-2014

Client
Community Chest
of Korea

Main Contractor
SG Shinsung
Construction

Structural Engineer
CNP Dongyang

All units are a combination of regular triangles and are easily expandable according to changes in size and length.

2013년 11월 시속 300km가 넘는 슈퍼태풍 하이옌(Hyiyon)이 필리핀 중부 타클로반 지역을 강타해, 사망자 6,000명과 실종자 1만명 이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구호자금을 실행하는 컨소시엄(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아시안브릿지 나효우, 건축가 위진복 및 박관주)은 대피소 건설, 외상후 증후군 치료 등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재난지역에 재능, 자금 기부를 통해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의 수행을 보여주고, 건축이 극한 자연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풍이라는 재난에 특징되는 본 프로젝트는 도시리서치를 바탕으로 순차적인 대피거점을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결론을 바탕으로 대피소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였다. 프로토타입은 동양구조안전기술 및 SG신성건설과 긴밀한 디자인 과정을 통해, 바람관통율 50프로 건물표면을 가정하여 시속 350km에 골조가 견디는 프리파브 철골조로 디자인하였다. 현지에 재료수급이 불가한 점, 재난상황에 동력이 필요한 건설장비 및 낮은 워크맨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접합은 맨파워로 결합이 가능한 볼트접합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모든 단위형태는 정삼각형의 조합으로 크기 및 길이의 변화에 따라 쉽게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다.

본 프로젝트는 일방향적 물리적 구조활동을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지역민과의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하여 지역주민과 지역환경에 기반한 태풍에 대응하는 건축 제안이다.